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총력 ‘지역사회와 공생’ 일자리사업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 여야 국회의원 만나 유치 필요성 적극 피력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를 위해 여야를 만나며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전북 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국민의 힘 전북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남원 유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최 시장은 전주 동행으로 배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사업에 대해 영호남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남원의 강점을 설명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추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남원이 최적의 지역이라는 것을 잘 준비해 알리고 결과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비교 우위를 잘 설명도 하고, 공감대 확산도 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만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는 등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유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어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를 위해 여야를 만나며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오는 11월 13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경찰교육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어필하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유치에 초당적인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은 신입경찰 교육 강화 및 교육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후보지로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등을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편의

분석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경식 시장은 이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만나, 국민안전체험관, 생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부운지구 하수관로 정비,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정비비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단계 증액 반영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회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열려

표창 수여·공연 등 진행

남원시는 2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상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돌봄을 묵묵히 수행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남원시립농악단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수여 △의무 강사와 함께하는 토크쇼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요양보호사분들

의 사기를 증진하고 응원, 더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되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돌봄의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다"며, "시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자원순환단, 사업 수익금 기탁식 가져

순창군의 역점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 어르신들의 뜻깊은 나눔까지 더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은 올해 공약형 2,085명, 사회서비스형 718명, 시장형 100명 등 총 2,90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자원순환단과 같은 환경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순창군 노인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담회에서 뜻깊은 기부식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군수와 순창시 시장 김인태, 김인 한국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자원순환단과 폐건전지 수거 사업 참여자 등 11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표 유영갑(68세), 임점라(74세) 어르신은 최영일 군수에게 435만원의 수익금과 건전지 1,000개를 기탁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기탁된 수익금은 자원순환단이 폐페트병을 가공·판매해 얻은 331만원과 시니어클럽이 순창장류축제에서 국화빵을 판매한 수익금 103만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지원사업단 어르신들이 11개 읍·면 전역에서 수거한 폐건전지 1,000개도 함께 전달됐다.

최영일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가꾸고 탄소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금까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청 접수

남원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위해 14일 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답례품도 남원에서 생산·제조되어야 하고 전자상거래대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

를 구비하여 남원시청 행정지원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기간 내 접수된 공급업체는 담당부서의 1차심사(현장조사)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는 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답례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재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 설치·운영

임실군이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임실치즈데파르에 2대, 옥정호 요산공원에 1대를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임실을 주민센터 내에도 1대를 추가로 신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생수, 음료수의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기기이다.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은 후 가입하고, 기기의 터치스크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비닐과 뚜껑

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투명 페트병 1개당 10원씩 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된 포인트가 2천점 이상일 경우 해당 어플에 신청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파쇄식으로 기기당 500ml 투명 페트병 기준 1,500개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기기를 통해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분쇄·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이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063-650-1429)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경찰서, 경찰-소방 긴급 신고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2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과 임실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소방간 긴급신고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0일 체결된 경찰청-소방청 긴급신고 공동대응 개선 협의안의 적극 이행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유 및 현장소통 강화 방안 △협의회, 협업 FTX 활성화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 연락망 정비 등 효율적인 공조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사항과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